

교원 정기인사 만족도 매년 '상승세'

도교육청 조사 결과 전년보다 2.6%p 포인트 증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소속 교원들의 정기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지난 3월 1일자 정기 인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전년보다 2.6% 포인트 증가한 69.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 대상자 본인의 인사 체감 만족도는 83.9%로 조사됐으며 인사 청렴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88.9%가 만족한다고 답함으로써 교육감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인사원칙과 인사관리기준에 따른 공정

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완전히 정착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교육공무원 1만3,870명 중 89.2%인 1만2,367명이 참여한 이번 정기 인사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응답은 69.8%(2016년 67.2%, 2.6%p 증가) ▲'불만족' 4.2%(2016년 5.0% 0.8%p 감소) ▲'보통' 26.0%로 나타나는 등 정기인사에 대한 교육가족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의 청렴성을 묻는 설문에서 ▲만족은 전년보다 0.9%p 증가한 83.9%

▲불만족은 전년보다 0.3%p 감소한 0.8%로 조사돼 응답자 대부분이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보 및 승진 서열부'에 따라 인사가 충실히 실시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0.5%p 증가한 80.8%(9,948명)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지난 3월 1일자 인사대상자의 만족도는 85.0%로 집계됐다.

보직 및 임지배정 만족도는 전년보다 1.8%p 증가한 73.9%, 교육장공모제 시행에 대한 만족도는 70.7%인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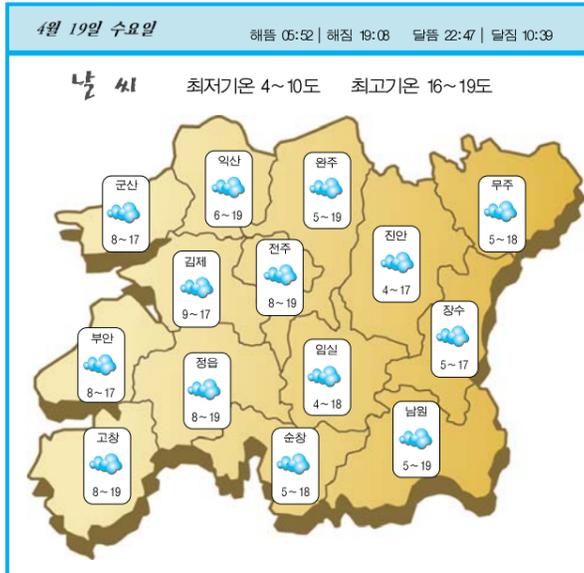
정기인사와 관련한 우수시책으로는 ▲교감자격연수 희망자 순위 및 기준점수 공개 ▲성별비 경력자 승진배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화 지원 ▲현장실사강화 ▲교감면접고사 강화 등이 손꼽혔다.

보완사항으로는 교원상처치유 프로그램 인사관리기준의 개정 교장공모제, 인사실무위원회 운영, 교장 중임 심사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이번 만족도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고 불만족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교육가족들이 교육발전에 헌신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2018학년도 학교장전형고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8층 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학교장전형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도내 학교장전형고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비평준화 일반계고(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고 제외) 등 총 97개이며 이날 설명회는 해당학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이 참석했다.

2018학년도 고입 원서접수는 △전기고(마이스터고) 10월23~27일 △전기고(특목전형) 11월7~8일 △전기고(일반전형) 11월10~14일 △후기고(공통) 12월26~28일이다.

추가모집은 2018년 2월5~7일 진행된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IFA U-20월드컵 코리아 티켓 기증식을 가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외계층 아동 위한 FIFA U-20월드컵 티켓 기증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를 나눔월드컵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18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IFA U-20월드컵 코리아 티켓 기증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월드컵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총 1000만원 상당의 티켓 1073매를 기증했다.

이번 티켓 기증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지

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월드컵 관람 기회를 제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증된 티켓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이날 "우리 공사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U-20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이번 기증식이 나눔월드컵 분위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번 U-20월드컵 대회에는 최근 들어 티켓 판매 및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등 전주 시민들과 전국 축구 팬, 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전주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개막전을 포함한 예선 2경기가 열리고, 최근 상태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기량이 최상의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티켓 구매는 대회조직위 공식 홈페이지(kr.fifa.com/u20ticket)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063-281-6686)으로 문의하면 되며, 11 이상 단체 구매 시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FIFA U-20 월드컵 홍보 축구공 모양 비빔밥 제작

전주시가 오는 5월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구공 모양의 비빔밥을 만들어 홍보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을 응용한 축구비빔밥 모양틀을 제작,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된 전주비빔밥업소에 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축구비빔밥은 낚시꾼 가장자리에서 흥겨운 고명을 깔고 그 한 가운데에 식품위생용기로 안전한 소재로 제작된 축구 모양틀로 축구공 모양을 낸 밥이 올려진 형태다.

월드컵 기간 동안 전주에 오면 미래 축구 스타들의 경기도 관람하고 맛갈스런 축구 비빔밥도 맛볼 수 있다.

'고궁' 등 전주비빔밥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업소 관계자에게 축구 비빔밥 조리 방법 등을 설명



하고, 월드컵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전주 음식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축구공 모양을 내는 과정이 전주비빔밥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미리 예약 후 방문하면 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내 초·중학생 4135명에게 북 토크콘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전북도내 110개 초·중·고교 학생 4135명에게 북 토크콘을 지원한다.

북토크콘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의 문화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북 토크콘을 수령한 학생은 청소년 북토크콘 선정도서 70종 중에서 원하는 도서 1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북토크콘을 활용해 선생님과의 만남, 작가를 만나는 책 선물,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북토크콘 독후감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북토크콘 선정도서 70종 중에서 원하는 도서 1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북토크콘을 활용해 선생님과의 만남, 작가를 만나는 책 선물,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북토크콘 독후감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꾸는 아침의 여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리'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